日, 절에서 함께 울리는 염불과 찬송가

350년 전 그리스도교 인연 눈길
신도등록으로 천주교인들 보호
마지막까지 기독신앙 이어진 곳
"정기적인 교류로 역사 전할 것"

박영빈 객원기자


십자가를 중심으로 불교와 기독교의 내용을 담은 위령비.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일본 동북부 이와테현(岩手縣県), 이치노세키시(一関市)에 소재한 쵸토쿠지(長徳寺). 최근 이 사찰 경내엔 독특한 위령비가 건립됐다. 십자가가 가운데 새겨진 위령비 앞에 스님들과 신부, 목사들이 모두 모여 각자 염불과 예배를 진행했다. 중세, 박해받던 천주교도들을 보호했던 쵸토쿠지의 은덕을 기리고 희생된 이들을 위령하기 위해 세워진 위령비에 대해 10월 5일, 일본의 '토호쿠 방송', '야후재팬 뉴스' 등이 특별 보도했다.

쵸토쿠지는 14세기 창건된 고찰로 오랫동안 지역 신앙의 중심이 되어온 사찰이다. 쵸토쿠지는 지난 9월 초 사찰 대중들의 발의로 지역 기독교 단체들과 함께 경내에 중세시기 극심한 박해 속에 끝내 순교하거나 관련자로 체포되어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령하는 비석을 건립했다. 비석은 검은 대리석으로 조성됐으며, 가운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우에 '나무아미타불'의 육자명호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성경구절이 새겨졌다. 쵸토쿠지는 타종교의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비를 세우게 된 계기에 대해 "본 사찰은 350년 전부터 그리스도교와 인연이 있는 사찰"이라며 긴 역사에 대해서 설명했다.

쵸토쿠지의 주지 시부야 마사유키 스님은 "이곳 이와테현은 천주교가 나라로부터 박해를 받던 시절, 가장 마지막까지 교회가 남아 있던 지역"이라며 "끝내 신앙을 지킨 300여명의 신자들과 사제들이 순교한 처형장에 당시 쵸토쿠지의 주지였던 치톤(智頓)스님이 육자명호를 새긴 위령비를 세워 넋을 기린 것이 기독교와의 첫 인연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스님은 "당시 나라에선 배교한 신자들의 이름과 거주지를 〈종문개장(宗門改帳)〉이라는 명부에 적어 사찰의 신도로서 감시, 관리하도록 위임했다"면서 "쵸토쿠지에도 많은 수의 배교자들이 신도로 등록됐다"며 이어지는 역사를 설명했다.

스님은 토호쿠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뜻밖의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시부야 스님은 "당시 쵸토쿠지의 신도로 등록된 배교자들 가운데는, 겉으로만 배교했을 뿐 실제로는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던 교인들이 많았다. 사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묵인했다. 서류상으로 그들은 쵸토쿠지의 신도기에 절의 보증으로 처형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사찰이 박해받던 천주교인들을 보호한 사실을 밝혔다.

신도로 등록돼 살아남은 교인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해당 사찰의 신도로 그대를 이어 오고 있으며, 일부는 종교의 자유와 함께 천주교로 복귀한 것으로 전했다. 선조가 교인이었다는 한 신도는 기념비를 앞에서 "지금에 와서는 슬픔을 이야기하기보다,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전하고 싶다"며 위령비가 세워진 뜻을 되새겼다.

지역 교회사에 밝은 카와가미 나오야 목사는 "이 지역은 마지막까지 기독교 신앙이 지켜지던 곳으로, 당시 지역의 영주가문 역시 최대한 박해를 미루던 입장이었다. 또 당시 교인들의 경우 서양 선교사들의 교육을 받은 고급 인재였던 경우가 많아 서류상으로 배교로 등록하여 지역의 경제나 생산을 위해 실제 신앙은 묵인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쵸토쿠지와 지역 기독교 단체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교류를 진행하며 위령기도회를 비롯해 두 종교 간의 역사와 미래를 향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부야 스님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것이 많다. 새로운 정보들이 튀어나오기도 한다"면서 "두 종교가 공존한 역사를 앞으로 더 찾아내어 후대에 전하겠다"며 앞으로도 사찰의 역사를 전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印 거물 정치인, 불교 개종행사 이끌어

델리지구 사회복지부 장관 라젠드라 팔 고탐 논란

10월5일, 불가촉천민 1만 명
스님에 계받고 불교로 개종


뉴델리에서 열린 대규모 불교 개종식을 이끄는 라젠드라 (사진중앙). 사진출처=인디안 투데이

인도 거물 정치인이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하는 불가촉천민들의 개종식을 이끈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월 9일 인도 유력 일간지 '인디아 투데이'가 "델리지구 사회복지부 장관인 라젠드라 팔 고탐이 단상에 올라 개종식을 이끌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개종식과 그 내용이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불이 붙고 있다.

지난 10월 5일 뉴델리 암베드카르 박사 기념공원에서 인도불교협회 주최로 대규모 불교 개종행사가 진행됐다. 불가촉천민이라 불리는 달리트(Dalit)계급들을 중심으로 약 1만 명의 힌두교도들이 스님들께 계를 받고, 힌두교를 거부하는 선언을 함으로써 불교로 개종했다. 행사에 대해서 인도 현지에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일었다. 행사가 진행되는 날이 힌두교 신을 기리는 축제일과 겹치는 것에서 노골적인 반 힌두 노선을 보인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번 행사에서 인도의 거물 정치인인 라젠드라 팔 고탐(Rajendra Pal Gautam)이 개종식을 이끈 영상과 사진이 SNS를 통해 공개 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라젠드라는 현재 인도 델리 연방 수도지구 사회복지부 장관이자 인도 최대 야당인 AAP소속 입법회 의원으로 2015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라젠드라는 정치인으로 활동하기 전에 이미 불교를 믿었으며, 불교활동가로 인도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였던 것으로 전했다.

문제가 된 영상에서 라젠드라는 단상에서 스님들과 함께 힌두교를 거부하는 맹세문을 선창하며 개종식에 참석한 이들을 이끌었다. 맹세문에는 "더이상 힌두신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며, 그들을 숭배하지도 않을 것이다. 신의 화신이라고 하는 라마와 크리슈나를 믿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힌두교를 거절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어진 연설에서 라젠드라는 "카스트가 타고 난 것이라면 왜 다른 나라에는 카스트가 없는가?"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 행사와 라젠드라의 연설을 계기로, 인도의 여당인 BJP 델리지부는 "라젠드라 연설은 노골적으로 반힌두교적이며, 종교간 반목을 일으켰다"며 모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라젠드라와 AAP는 이를 거부하고 BJP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종교행사가 정치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불교계, 총기 희생자 화장터 마련

학살 현장 인근 사찰 3곳
희생자 장례…유가족 위로


태국 북동부에 마련된 어른이집 총기난사 희생자 화장터 모습. 사진출처=모닝스타

태국 어린이집 총기난사 참사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태국 불교계가 희생된 어린이들을 위한 화장터를 마련했다.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북동부 농부아람푸주 나끌랑 지역에 위치한 랫 사마키 사원(the Rat Samakee temple) 스님들은 총기난사 희생자들을 위한 화장터를 마련했다. 해당 사찰은 어린이집에서 약 2마일(약 3.2km) 떨어졌다.

주지인 프라 크루 아디살 키자누왓(phra Kru Adisal Kijjanuwat) 스님은 "3일 간 장례 절차를 마치고 9월 11일 희생자 중 19명을 이곳에서 화장했다"며 "사찰에 있던 화장시설이 1곳뿐이어서, 여러 명을 함께 화장하는 만큼 피해 유가족들을 배려해 화장시설을 더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모두 함께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근 사원 두 곳에서도 19명 외 다른 희생자들을 위한 임시 화장시설을 설치했다.

다만 학살범의 경우 해당 사원들에서 화장을 거부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 화장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6일 전직 경찰 빤야 캄랍(34)은 마약 소지 혐의로 해고된 후 나끌랑 지역 어린이집에 침입해 어린이와 교사들을 총과 칼로 살해했다. 이에 어린이 23명 등 35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당 어린이집은 자신의 아들이 다니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3살 아들까지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태국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2월에도 방콕 북동부 나콘랏차시마에서 군인이 지휘관 등을 총으로 쏘고 무기고에서 총기와 탄약을 탈취한 뒤 대형 쇼핑몰에서 총기를 난사해 27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당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반다브가르 동굴, 불교 유적 아니다"

아쇼카대 나얀조트 라히리 교수 "힌두교 유적 가깝다"


인도 반다브가르 호랑이 보호구역. 사진출처=더힌두

인도 반다브가르 호랑이 보호구역(Bandhavgarh Tiger Reserve) 내 동굴이 불교 유적이 아닌 힌두교 유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도 매체 더힌두의 10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아쇼카대학교는 최근 "아쇼카대 역사학 교수인 나얀조트 라히리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동굴은 불교 유적이 아니"라며 "그의 보고는 ASI보다 선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고고학조사국(ASI)이 최근 마디아 프라데시 주(州)의 반다브가르 호랑이 보호구역 내 동굴은 2세기 조성된 불교 유물, 사원터는 8~9세기 조성된 힌두교 사원이라고 발표했다.

아쇼카대학 측은 "그 동굴들이 불교 공동체를 위해 만들어졌다면 불교적 성격을 지닌 기념탑과 조각 등이 있어야 한다"며 "인도 초기 조성된 암각화 사원들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아쇼카대학 측은 또 인도의 고고학자 N.P. 차크라바르티(N.P. Chakravarti, 1983~1956)가 해당 동굴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기원전 2세기에 이 지역에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주거지"라고 기록한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동굴이 생성 당시부터 종교적 용도로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추정된다. 8세기 칼라츄리 왕조 당시 종교적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시바신을 모시는 사원이 동굴 인근 고원의 꼭대기와 아래 언덕 경사면, 평지 등에 건설돼 있다"며 "비슷한 시기에 동굴도 사이바신전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ASI는 우리가 이미 지난해 3월부터 해당 동굴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조사 협조 요청이 오기도 했었다"라고 주장했다.

2022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신청자격
1.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방문 발급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신청 후 팩스 발급 요청
   4) 모바일앱(Play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설치 → 로그인(간편인증)
      → 우측상단 증명발급 선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선택
      → 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택 → 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 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지 원 금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2년 10월 1일(토) ~ 10월 31일(월)**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 → 지원금 입금(12월말 입금 예정)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미제출된 스님
   ※ 신규 지원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시까지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2020년도 분한신고 및 전 결계 미등재된 스님
4.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보험료 미납하신 스님
7. 군 복무 중인 스님
8.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시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1. 문의처 : **02-2011-1980~1, 1726~7**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게재

불기2566(2022)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삼 혜**